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4월 5일(일) 1583호



2025 부활절 칸타타.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

4월 4~5일 '부활주일' ... 칸타타 등 행사 이어져
차세대 '부활절 문걸이', 강동 '2026 행복이음 축제'

4월 4일(토)과 5일(일)은 부활주일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다. 서빙고온누리교회 토요일 1~2부 예배에서는 버금미션과이어 'I AM', 일요일 1~4부 예배에서는 위십과이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주제로 칸타타를 한다.

양재온누리교회 토요일예배에서는 양재 토요채버팀이 '완전한 사랑', 양재 일요일 1~4예배에서는 주기쁨찬양사역팀 '그 어린 양'을 주제로 찬양한다. 도곡교육관 일요일

1~2예배에서는 주경배찬양사역팀이 '모든 것 이루어졌네'를 주제로 칸타타를 한다. 다른 캠퍼스에서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는 각 가정에 '부활절 가정예배 문걸이'를 나눠준다. '부활절 가정예배 문걸이'에는 가족예배 가이드와 부활절 기도문이 적혀 있다. 각 부서에서는 부활절 기획예배 및 부활절과 관련된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한다.

강동온누리교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눈다. '2026 행복이음 축제'가 4월 5일(일) 오후 1시 30분 강동구 천호로데오거리 나비쇼핑몰 1층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부활절 달걀 나눔,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부스, 평강 캘리그래피, 부활절 찬양, 공감소비운동 등을 한다. 지역 예술가와 단체들이 참여해서 색소폰 연주회, 태권도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공감소비운동에는 손수레 양말(대표 곽호걸), 네일인(대표 송인아), 그랑프리 베이커리(대표 박성천) 등 지역사회 가게들이 참여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종료

7주 동안 디지털 디톡스,
생태 회복 등 실천

2026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 부인의 제자도'가 막을 내렸다.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이어진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에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참여했다. 7주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디지털 디톡스, 건강한 식습관, 생태 회복, 바른 언어생활, 절제와 성실, 겸손과 순종 등을 실천했다. 김우용 성도(S브릿지)는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기간에 디지털 미디어를 멀리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면서 몸과 마음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면서 "사순절 이후에도 가정과 일터, 생활 속에서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삶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참가자 소감을 모집한다. 묵상한 내용과 실천 사항, 실천 사진, 소감문 등을 문자메시지(010-5395-2319) 또는 이메일(onnuri.1ent@gmail.com)로 제출하면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소감문을 제출할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4월 30일 목요일까지 참가자 모집

K-CCM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30일(목)까지 지원서와 무반주 가창 영상, 사진 파일을 이메일(cgnhealingvoice@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무반주 가창 영상은 자유곡 1곡과 지정곡 20곡 중에서 1곡을 선택해서 각각 1분 이상 부르고, 그 영상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데뷔한 프로 가수나 찬양사역자도 참가할 수 있다. 지원서와 지정곡 리스트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healingvoice.cgnkore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최종 우승자 1인에게에는 상금 3천만 원을 수여하고, 결선에 진출한 TOP 7인에게에는 CGN 프로그램 출연, CCM 음원 발매, CGN 월드투어 콘서트 참여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02-3275-9333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

장애인주일 전후, 의류·생활용품 등 기증

온누리교회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굿월스토어가 협업해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을 한다. 양재 4월 12일과 19일, 부천 상시 수거, 대전, 세종 4월 19일과 26일 진행한다.

캠퍼스별 지정된 장소에 의류,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주방용품, 도서, 화장품 등을 기증하면 된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굿월스토어는 장애인이 일하는 능력을 키워서 자립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소매 유통 중심의 직업 재활 시설이다.

문의: 1533-0091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좁은 길, 좁은 문'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마무리

2026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이하 40일 새벽기도회) '좁은 길, 좁은 문'이 지난 2월 23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됐다.

고난주간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이어 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된 '회개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와 기도제목을 적은 종이를 못 박고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보냈다. 정승숙 권사(성동광진공동체)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며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도전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세경 성도(한강공동체)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가롯 유다: 그가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 13:21~30

열두 제자 중에서 마지막 제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명단 가장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제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 하나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밤이러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짧은 문장에 유다라는 제자의 비극적인 인생을 압축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가 대조됩니다. “그가 조각을 받고 나갔더니 밤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 표기가 아닙니다. 유다의 영적 상태와 운명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유다의 퇴장과 어둠의 시작을 연결함으로써 그의 악행이 어둠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더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유다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정반대 인생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로 그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서도 빛이 아닌 어둠을 사랑해서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가롯 유다’라는 이름 앞에 붙여진 ‘가롯’은 지역 이름입니다.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의 가롯은 ‘이스카리옷’, 히브리어로 ‘이쉬크리웃’입니다. ‘크리웃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고, 유대 지방입니다. 나머지 열한 제자는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롯 유다만 유대 지방 출신입니다. 이것조차도 그가 다른 제자들과 깊이 어울리지 못했던 이유일 거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갈릴리의 제자들과는 훨씬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본 이유로 여기기도 합니다.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돈을 맡았던 회계였습니다. 이 직책은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을 때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절에 쓸 것을 사라”고 하시는 줄로 알았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의 겉모습은 완벽했습니다.

가롯 유다도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였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선택한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유다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웠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도도 했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 행함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가 배신자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다를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으로 택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시작이 아니라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라는 질문 앞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대답이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은 삼십 냥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인데, 매우 부족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거대하게 쌓여 있는 마른 장작더미에 불을 붙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배신의 유일한 동기라고 복음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돈에 대한 탐욕이 많아서 배신한 거라면 스승을 그 작은 돈에 팔아넘기는 것보다 계속 돈궂을 맡고 있는 게, 그래서 도둑질하는 게 더 큰 수익 아닐까요? 또 그의 주된 관심이 돈을 모으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 돌 곳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 돈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포기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라면 그가 후회하며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은 양심도 팔아넘기기 때문에 후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불을 붙인 계기는 되었지만, 그보다 깊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 그리고 탐욕과 위선

적어도 다섯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메시아 사상입니다. 정치적 왕국을 꿈꿨던 그의 사상적 배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의 메시아관은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룹에서 세 번째 나오는 다대오, 유다, 시몬의 공통점은 모두 ‘열심당원 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마다 유다는 신났을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보이신 분이려면, 이렇게 거룩하고 순수한 분이려면 유대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2의 모세가 되어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가 물려올수록 피하셨고, <마가복음>에서 여러 차례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는 계속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로마를 비판하고, “저 가이사를 끌어내려야 된다. 유대가 독립돼야 된다”라고 선포만 하시면 유대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정치적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관심 없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신 것도 유다의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유다에게 계속 실망으로 누적되고, 분노로 발전되었고, 결국 배신에 이르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탐욕과 위선의 모습입니다. 3년 동안 그는 위장 생활을 했고, 점진적으로 그 위선이 깊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유다가 비판했습니다.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얼마나 의로워 보입니까? 그러나 위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그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궂을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고 말합니다. ‘훔쳐갔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은 하루아침에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작은 합리화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자기기만을 거쳐 그 사람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유다는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3년 동안 다른 제자들과 함께 먹고 기도하고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본심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놀라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연이어 질문합니다. 놀랍게도 유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탐욕과 위선이 그를 사로잡은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었습니다. 과정 중에 점점 탐욕과 위선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자기 보호, 보존의 본능 사단의 전략적인 개입

셋째, 자기 보호, 보존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증오로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유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며 지적하셨습니다. 가장

“우리가 나가는 길이 빛의 길인가? 아니면 어둠의 길인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다행히 아직 완전한 어둠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배신의 뿌리를 끊어내고 온전한 제자가 되십시오.”

많은 지적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책망을 받을 때마다 돌이켜서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눈길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게다가 유다는 매우 상황 파악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사람, 돈 계산을 잘하는 사람, 상황 파악이 가장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가장 먼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써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배신자는 살려줄 것이다’라는 자기 보호의 본능을 보입니다. 야비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넷째, 사단의 전략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가롯 유다에 대한 사단의 개입을 두 단계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13장 2절에서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넣었다’는 단어를 씁니다. 27절을 보면, “유다가 빵을 받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넣는 것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유다의 탐욕과 위선이 사단에게 기회를 주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마귀가 그를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한순간에 우리를 통째로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단을 내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용하면 결국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

다섯 번째,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이였습

니다.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끝까지’라는 표현을 ‘유다까지’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기셨고, 식사하는 가운데 빵 조각 하나를 떼어 주셨습니다. 최고 중요한 손님에게 주는 행위였습니다. 빵 조각을 떼어 건네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유다는 마지막 사랑까지 받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닫혀 있었고, 그 순간 마귀에게 마음을 활짝 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마음을 닫는 만큼 사단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마귀가 활짝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만큼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유다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유다의 최후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그가 ‘뉘우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 삼십 냇을 그들에게 되돌려주며 뉘우쳤고, 자살했습니다. 여기서 뉘우침은 감정적 후회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 돌이킴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한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적어도 세 번의 회개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이고, 또 하나는 겟세마네에서 유다에게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느냐”라고 하셨을 때도 회개할 수 있었고, 마지막 은 삼십 냇을 돌려주며 가책을 느꼈을 때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의 기회 모두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몹시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몹시 괴롭다고 하신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내다보시며, 그리고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괴로우신 것은 배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 영혼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롯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27절).

배신을 촉구하신 게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예수님의 친구가 메시아를 배신할 것이 예언되었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해야 하는 것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유다는 하나님 예정의 희생자가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다복음>이라는 위경에서는 유다를 미화합니다. 그가 원치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행했던 ‘비운의 운명’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성경을 왜곡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종교 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반과 죽음이 예언되어 있다고 해서 유다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예언을 이루고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악한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죄 짓는 것을 예정하지 않으십니다. 죄란 철저히 인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배신은 자기 의지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유다가 먼저 갑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 넘겨줄지를 먼저 제안합니다. 그가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 먼저 제안했고, 먼저 주도적으로 의논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원치 않은 악역을 맡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한 악인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고 내버려 두심으로 이용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고,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그가 끝까지 거부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을 뿐이며,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은혜를 거절한 것은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악한 선택을 아셨고, 그의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를 악인으로 규정하며 이 사건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죄 역시 그에게만 해당되는 유일무이한 죄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유다 같은 배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유다의 배신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열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배신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사단의 먹이와 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마저 탐욕과 위선으로 회개하지 않음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탐욕과 위선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유다가 잘못된 신앙의 동기를 가졌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타협의 위험도 경계해야 합니다. 유다의 배신도 작은 탐욕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뒤에 숨어 있는 내면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회가 아닌 회개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다의 비극은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넘겨준 행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유다의 배신을 보면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줌으로써 배신한 것이고,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말로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끝맺는 말 “그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나가는 길이 빛의 길인가? 아니면 어둠의 길인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다행히 아직 완전한 어둠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배신의 뿌리를 끊임없이 끊어내고,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일까?

누군가 “예수는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 부활 이야기는 조작된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을 포함한 고대의 주장들이 역사라기보다 신화처럼 보이기 쉽다. 고대의 저자가 기적적인 경험이나 관찰을 기록할 때 대개 그들이 순진했거나, 착각했거나, 망상에 빠졌거나, 거짓말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고대 성경 저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경험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적 경험을 동시에 일어난 망상이나 우연한 오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아마 그래서 많은 회의론자는 제자들이 단순히 거짓말을 했고, 곧 부활에 대해 조작된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공모가 성공하려면 특정한 특징과 조건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결정적인 요소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이야기는 조작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과 너무 긴 시간이 관련되어 있다. 성공적

인 공모는 가능한 적은 공모자들이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 거짓말을 유포할 때 성립한다.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비밀을 지키는 것이 스물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또한 하루 동안 거짓말을 유지하는 것이 1년 동안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은 너무 많았다(누가는 <사도행전>에서 120명을 언급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500명 이상을 언급한다). 게다가 이 증인들은 거의 60년에 걸쳐 자신들이 본 것을 흔들림 없이 전했고, 그 이야기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 만약 예수님의 이야기가 조작된 거라면 거의 60년에 걸쳐 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쉽게 드러났을 것이다.

둘째, 제자들의 관계는 이 이야기를 조작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성공적인 공모는 탁월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공모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여러 용의자를 조사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을 분리한다. 또한 성공적인 공모는 강한 가족관계의 이점을 가진다.

공모자들이 가족 구성원을 고발할 가능성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장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열두 사도는 서로 수천 km 떨어져 있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다. 그들은 거짓말을 조율할 수도 없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도 반박할 수 없었다. 몇몇 사도들은 친척 관계였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고, 초기 복음서 저자인 마태조차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작된 거라면 제자들 사이의 지리적, 관계적 거리 때문에 쉽게 드러났을 것이다.

셋째, 제자들의 동기가 이 이야기를 조작하기에는 너무 약했다. 성공적인 공모는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 수사관들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뿐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바로 ‘금전적 욕심’, ‘성적 욕망’, ‘권력 추구’다. 그렇다면 부활의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500명 이상)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의 동기는 무엇이겠는가? 그들 중 누구도 그 거짓말로 부자가 되지 않았고, 누구

도 연인을 얻지 못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순교를 막을 수 있는 권력조차 갖지 못했다. 오히려 초기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 때문에 고통만 겪었다. 대부분은 순교했고,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았으며, 다른 이들은 사회에서 배척당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거짓말을 할 동기도 없이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작된 거라면 연을 것이 거의 없었던 집단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쉽게 드러났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 누군가 “예수는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조작된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이 이야기는 조작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과 너무 긴 시간이 관련되어 있다.”

“제자들의 관계는 이 이야기를 조작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제자들의 동기는 이 이야기를 조작하기에는 너무 약했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삶과 신앙

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오범규 장로
(서초C공동체)

지난 2월, 한 여론 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 국민 40%가 점, 사주, 운세 등을 본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아직도 많은 수의 국민이 민간, 토속 신앙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신교인들의 통계도 발표했는데, 23%가 점, 사주, 운세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더구나 20~40대 크리스천은 30%로 나타나 젊을수록 민간신앙에 더 쉽게 다가가는 추세를 보였다.

얼마 전 청년들과의 대화 중에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머뭇거리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에는 친한 성도분의 손주가 “왜 진화론이 틀리고 창조론이 맞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설명해줬다고 한다. 그러나 손주가 잘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서 답답했다고 하셨다.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기 힘들고, 나아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쾌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근대 사상의 도전 속에서 신앙 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1790년 임마누엘 칸트의 이성·과학·인간 중심 사상과 1859년 <종의 기원> 이후 확산한 자연주의는 하나님의 진리와 창조 질서

를 위협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신앙이 삶의 전체임을 설명할 체계가 절실했고, 아브라함 카이퍼 등에 의해 이 용어가 만들어져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는 “온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 곳도 없다”는 유명한 선언으로 기독교 세계관 사상의 시작을 알렸다. 21세기에 들어와 찰스 콜슨은 <How now shall we live?>라는 책에서 기독교는 종교를 뛰어넘어 삶 전체를 보는 세계관이라고 역설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각 영역에서 올바른 삶에 대해 논하였다. 그는 창조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변증하고자 기독교 세계관의 네 가지 핵심 질문을 던졌다. ‘첫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둘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셋째, 해결책은 무엇인가?’, ‘넷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이 글에서는 삶의 본질인 네 번째 질문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요셉은 17살에 이집트로 팔려 가 노예 생활을 시작했다. 심지어 억울한 죄수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스림을 의지했다. 그래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430년 뒤에 나타날 모세에게 인계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충실하게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었다. 그의 세계관은 힘들고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걸어간 소명의 삶이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창 39:2).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어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창 39:23).

바벨론으로 간 다니엘은 신앙 신념을 끝까지 지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자 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 유다의 멸망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전할 수 있었다. 그의 고집스러운 신념과 하나님이 보여주실 기적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좇아야 할 세계관의 핵심이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세상의 시민임과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다. 우리는 세속적 삶 속에 있지만,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때 존재 이유가 드러난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보여 주신 이유가 단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승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집 한 칸 장만하고, 무너진 재정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 예수님은 그저 돈 좀 주시는 해결사로 낮아질 것이며, 우리는 그저 그런 종교인이 될 뿐이다. 이 그릇된 생각 때문에 크리스천이면서도 점과 운세를 보러 다니는데 거리낌이 없게 된다. 그저 빠른 응답과 행복 고문을 위로로 여기며, 거짓 신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낸다. 기독교인이 점을 본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이야기에 놀라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더욱 놀라울 뿐이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개선해주시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시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신앙이 실제 삶의 지침이 되지 못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윗을 보라. 다윗은 당시 최고의 무기인 갑옷과 투구와 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맷돌로 승리를 이끈다. 기독교 세계관의 삶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온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나의 모든 선택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걸어가는 것이다.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선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바른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아침의 큐티, 말씀 읽기,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 한다. 이 과정들을 통해 분별의 능력을 얻고,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 그때 비로소 진화론의 허구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당하게 될 진리의 훼손과 영적 피해가 명확히 다가올 것이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해쳐나갈 용기 그리고 자녀들을 이해시켜야 할 사명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삶도 성경 속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고전 15:19).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노래하는 남자, 밥하는 여자

이정우, 안소연 선교사 부부의 아주 특별한 선교

“나를 따르라”(마 16:24).

2026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전제한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이다.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한 모든 이들을 향하기 때문이다.

〈온누리신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난다.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뜨겁게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과 고백을 듣는다. 그 여섯 번째 주인공은 이정우, 안소연 선교사 부부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산자락 끝,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막다른 길에 ‘품(品, embrace)’이라 쓰인 작은 간판을 건 편백 집이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맛있는 냄새가 마중을 나왔다. 갓 구운 빵 냄새와 맛있게 익은 고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안소연 선교사가 식탁을 차리며 활짝 웃고 있었다. 식탁에는 중동식 향신료 자타르를 올린 빵, 직접 만든 크림치즈, 샐러드와 소고기 스테이크가 가득 차려져 있었다. 선교지에서 30년을 보낸 부부가 한국의 산속에 차려놓은 밥상이었다.

식사가 끝날 즈음, 이정우 선교사가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 위에 손을 얹더니 이내 찬양이 흘렀다. 함께 따라 부르다가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이 공간이, 이 부부가 오랫동안 지쳐 있던 나의 어딘가를 건드린 것만은 분명했다. 그날 이후 이 집, ‘품’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막힌 문 사이로 ‘열린 길’

이정우, 안소연 선교사의 첫 만남은 세상적인 자리였다. 이정우 선교사는 3대째 크리스천 집안에서 자랐고, 안소연 선교사는 교회에 한번도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그 두 사람이 무언가에 이끌린 듯 금세 사랑에 빠졌다. 당시 이정우 선교사는 한창 세상을 즐기던 청년이었지만, 믿음만큼은 분명했다. 안소연 선교사에게 “나랑 결혼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안소연 선교사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따라갔다. 그 교회가 온누리교회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온누리교회 초창기 성도가 된 두 사람의 신앙이 아름답게 피어올랐다.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故 하용조 목사의 말이 부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1996년, 부부는



이웃과 함께 노래하고, 밥 먹으며, 사랑을 나누는 이정우, 안소연 선교사 부부.

한국에서 가꿔 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감하게 집을 쫓다.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 받아 미국 보스턴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보스턴온누리교회 개척을 도왔다.

보스턴 생활을 이어가다 이정우 선교사가 사역 확장을 위해 중국 북경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부부는 북경으로 터전을 옮겼다. 그곳에서 또 북경온누리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께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비자까지 막혔다. 미국에서 했던 사업도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때 하나님이 막힌 문 사이로 길 하나를 내셨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걱정만 했습니다. 그때 장기 선교사 훈련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선교지에 머물 생각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초청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기타 치는 남자’와 ‘요르단 밥’

이정우, 안소연 선교사 부부는 캐나다에서 예수제자훈련학교(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을 마치고, 요르단으로 파송을 받았다. 사실 무슬림 선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거나 준비했던 게 아니어서 왜 그곳인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나님이 한 교회에서 파송 이유를 알려주셨다.

요르단에 있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혼자 앉아 구슬픈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 이정우 선교사가 아무 생각 없이 기타를 꺼냈다. 평소 습관대로였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정우 선교사를 찾아왔다. 종교적으로 음악 교육이 없고, 악보조차 없는 그 땅에서 찬양 반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놀라운 일이었다. 이정우 선교사는 찬양 없는 예배에 청년들이 하나둘 떠나는 그 교회에 안타까웠다. 마침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 요

르단에 모여든 각국의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들을 한데 모아 예배팀을 꾸렸다. 팀 이름은 ‘블루버드’였다. 그 팀이 16년을 함께 했다. 블루버드는 요르단의 크고 작은 교회들을 돌아다녔고, 레바논에서도 찬양 집회를 열었다. 난민들이 유럽으로 흩어지던 시기에는 블루버드가 난민센터를 순회하며 찬양했다.

이정우, 안소연 선교사 부부는 무슬림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학원도 열었다. 안소연 선교사는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 케이크를 구웠고, 레슨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1년에 두 번 여는 학원 음악회에는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왔다. 무려 150명이 찾아왔다. 안소연 선교사는 그때마다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해도 힘든 줄 몰랐다.

요르단의 젊은이들은 안소연 선교사를 ‘요르단 밥’이라고 불렀다. 안 선교사가 엄마처럼 늘 집으로 불러 밥을 먹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요르단에서도 그녀가 한 일은 늘 같았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사랑을 나눴다.

“요르단 사람들과 함께 먹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위로하고 싶어서 저희 부부를 요르단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공연하는 일도, 몇백 명을 먹이는 일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밥 먹는 그 일아...

바쁘게 흘러가던 사역이 어느 날 갑자기 멈췄다. 사역이 무르익을 무렵, 한국에 나와 건강 검진을 받은 이정우 선교사에게 암 진단이 내려졌다. 항암치료를 마치고 다시 요르단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심장이 문제였다. 밤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요르단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는 치료를 이어갈 수 없

었다. 한시라도 빨리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지만, 이정우 선교사는 하나님께 “크리스마스 공연만 끝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콘서트가 끝난 다음 날 귀국해서 수술을 받았다. 의사가 “요르단에서 귀국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선교단체와 교회 모두 사역지로 돌아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부부는 그 몸으로 다시 요르단으로 돌아갔다. 16년 동안 요르단 사람들과 함께 일군 사역을 아무에게나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적합한 후임자를 세우고 이양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 사역지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그 힘든 이양의 시간 하나님이 부부에게 “한 사람을 보았니?”라고 조용히 물으셨다. 요르단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 집회를 열고, 밥을 먹이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한 사람을 깊이 바라볼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많은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원하셨다.

그 깨달음이 만든 곳이 ‘품’이다. 이곳은 기도원도, 선교단체 사무실도 아니다. 그냥 밥 먹고, 노래하고, 눈 맞추는 곳이다. 장소 임대료와 운영비 등 많은 비용이 어떻게 충당될까 걱정이 됐지만,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로 그 모든 것을 채워 가신다. ‘품’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맞이한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노래한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도 않는다. 그래서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도 편하게 올 수 있다.

“일부러 이름을 거창하게 짓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목적이 생기거든요. 그냥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밥하고, 노래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사역에 지쳐 힘이 필요한 선교사들이 왔고, 교회 안에서 관계 문제로 상처받은 이들이 왔다. 죽고 싶다는 마음을 안고 찾아온 동네 사람도 있었다. 선교사든, 동네 이웃이든, 처음 오는 낯선 이든 누군가 찾아오면 이 부부가 ‘품’을 내어준다. 그냥 옆에 앉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삶을 나눕니다. 사람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품습니다. 낭비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드십니다. 함께 노래하고, 밥 먹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힘 있는 자와 연약한 자, 어른과 아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교제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위로와 힘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나 ‘품’으로 오십시오!”

문의: facebook.com/pum.832402

침묵의 나선을 깨고, 가정을 다시 세웁시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가정의 질서와 용기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성산생명
윤리연구소 부소장)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는 배려와 존중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순간 비난받거나 고립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 결과, 마음속에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도 입을 닫게 되고, 결국 소수의견은 점점 더 숨어 버리며, 다수의견만 더욱 강하게 보이게 된다. 이것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침묵의 나선’이다.

문제는 이 침묵의 나선이 더는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제는 가정의 식탁, 부부의 대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왔다. 예전에는 가족은 생각이 달라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공동체였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깊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람은 용서와 인내, 화해와 책임을 배웠다. 그런데 오늘날은 달라졌다. 중요한 주제일수록 조심하게 되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아예 입을 다물게 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단정한 채 마음을 닫아 버린다. 그 결과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진짜 생각을 모른 채 지나가는 일이 너무 많아졌다.

본래 정치적 올바름, 곧 PC(Political Correctness) 자체가 처음부터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타인을 불필요하게 모욕하지 않으려는 배려,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조롱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분명 필요한 면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강한 이념, 즉 ‘PC주의’가 되면서 어떤 표현과 관점만이 도덕적으로 옳은 말로 인정되고, 그에 어긋나는 목소리는 반박의 대상이 아니라 침묵시켜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배려는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통제제가 되고, 대화는 점검과 검열로 바뀌기 때문이다. 가정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흔들리는 가정의 대화 구조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가정의 대화 구조’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나 미디어에서 성, 젠더, 인간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접했다고 해보자. 부모가 그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토론하기보다 아예 말을 피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괜히 잘못 말했다가 차별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두렵고, 자녀는 “부모는 구시대적이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가장 위험한 주제가 된다. 결국, 가정은 진실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갈등을 피하고자 조용히 지나가는 자리로 바뀌어 버린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엡 4:15)고 했다. 진리를 포기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사랑 없는 진리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진리 없는 사랑은 결국 방향을 잃게 된다. 믿음의 가정은 바로 이 둘을 함께 붙드는 자리여야 한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문화가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조차 더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감정과 자기 인식이 생물학적 현실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말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흐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는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전혀 다른 인간관을 갖게 된다. 부모는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자녀는 학교와 미디어가 전달하는 유동적 정체성의 언어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게 된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가족 내부에 깊은 인식의 단절을 가져온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지하고 억압적인 사람처럼

6:4)고 명하였다. 하나님은 결혼과 부모 됨을 선택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책임으로 가르치셨다.

오늘날 가정이 겪는 또 다른 위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의 상실이다. 전에는 갈등이 생겨도 붙들고 대화하고, 때로는 눈물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만 불편해도 관계를 끊는 쪽이 더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여겨진다. 사회에서 누군가를 ‘캔슬(Cancel)’ 하듯, 가정에서도 대화보다 차단이 먼저 나오고, 설득보다 거리 두기가 먼저 나온다. 가족 단체채팅방을 나가고, 아예 연락을 끊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상대를 ‘해로운 사람’으로 분류해 버리는 일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부적절한 말을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시켜 버리는 PC주의의 캔슬 문화(Cancel Culture)가 가정까지 침투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은 세상처럼 사람을 취소하는 곳이 아니다. 가정은 실수해도 돌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잘못이 있어도 회개와 용서의 문이 열려 있는 곳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벧전 4:8). 물론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잘못을 이유로 곧바로 관계를 끊는 것은 복음의 길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은 무너지는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작하시는 첫 자리다.”

보일 수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혼란과 불안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부모는 단순히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는지, 왜 몸은 단지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왜 창조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보호인지 차분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차단의 기술이 아니라 회복의 기술

나아가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의 문화가 결혼과 부모의 역할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한때 가정은 헌신과 책임, 인내와 돌봄을 배우는 자리였다. 결혼은 기분이 좋을 때만 유지하는 계약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지켜 가야 할 언약으로 이해됐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관계를 점점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든다. 부부도 서로를 언약의 동반자라기보다 감정적 만족을 위한 파트너처럼 여기기 쉽다. 부모 역할도 책임과 훈련보다 자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기술로 축소되기 쉽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창 2:24)이라고 하였고,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배워야 할 것은 차단의 기술이 아니라 회복의 기술이다.

‘식탁의 대화’ 회복, 부부가 먼저 한 방향으로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가정을 세우야 할까? 무엇보다 먼저 식탁의 대화를 회복해야 한다. 바쁜 일상에서도 가족이 함께 앉아 서로의 생각을 묻고 듣는 시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말할 때, 부모가 먼저 귀를 열어야 한다. 즉시 분노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끝까지 듣고, 질문하고, 성경의 빛 아래에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 생각은 어디서 왔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를 어떻게 비추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쌓일 때 자녀는 세상의 주장만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지혜와 믿음을 함께 배우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신 6:6-7)고 명하셨다. 말씀을 통한 가정교육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행사가 아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이루어

지는 거룩한 사명이다.

또한 부부가 먼저 한 방향으로 서야 한다.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기 전에, 부모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먼저 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존중하는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말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책임 있게 해결하는지를 보면서 관계의 문법을 배운다. 그러므로 부부가 각자의 감정과 피로 속에 흠어들지 말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다시 손을 맞잡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시 127:1).

가정을 지키는 힘은 인간의 지혜나 감정 조절 능력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집을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부모는 두려워하지 말고 양육의 책임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 세상이 부모를 낳은 존재처럼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모를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책임자로 부르신다. 사랑은 방임이 아니다. 존중은 무관심이 아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는 자녀가 배우는 내용과 접하는 문화, 형성되는 세계관을 책임 있게 관심 가져야 한다. 학교와 미디어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 두지 말고, 자녀가 분별하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잠 22:6)이라고 약속하셨다. 오늘 심는 말 한마디, 오늘 드리는 기도 한 번, 오늘 보여 주는 부모의 태도 하나가 먼 훗날 자녀의 삶을 붙드는 뿌리가 된다. 혼란의 때 성도들은 낙심할 시간이 없다.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정을 통해, 가정을 위해 일하신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학교가 혼란을 가르치고, 세속 문화가 질서를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가정을 통해 다음세대를 일으키신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압도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소명은 세상의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려진 가정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는 여호수아의 고백은 한 시대의 종교적 표어가 아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붙들어야 할 믿음의 선언이다. “우리 집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흔들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식탁이 침묵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과 사랑의 대화 오가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부부가 서로를 향한 언약의 신실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바른 질서와 따뜻한 사랑을 함께 배우게 하소서”라고 선포하자. 가정은 무너지는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작하시는 첫 자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분별이며, 침묵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다.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두 가지 혁명, 두 가지 다른 길



신원석 목사
(NGO 더멋진세상)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길, 아담 이후 인류는 이 두 갈래 길 위를 걸어왔다. 오스만투르크 제국에 의해 1500년 역사의 로마가 무너지면서 역사는 또 한 번 큰 갈림길에 서게 된다. 천년 넘게 이어져 온 가톨릭 중심의 제정일치 사회가 붕괴하자 유럽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의 붕괴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다. 로마가 멸망하기 약 100년 전, 유럽에는 네 가지 악재가 이어졌다. 첫째,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전되면서 ‘아비뇽 유수’(1309~1378)라 일컫는 교황들 간의 극심한 분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가톨릭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둘째, 유럽 전역을 뒤흔친 대기근(1315~1317)으로 유럽 인구의 약 15%가 사망했다. 셋째, 영국과 프랑스 간 왕위 계승 문제로 시작된 ‘100년 전쟁’(1337~1453)이 장기화 됐다. 넷째, 전쟁 중에 흑사병(1347~1351)이 창궐하면서 유럽 인구 약 60%가 목숨을 잃었다.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신앙의 힘이 가장 절실했던 시기 가톨릭교회는 오히려 바닥난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 면죄부를 팔았다. 그 결과 가톨릭과 교권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1453년, 100년 전쟁이 끝나던 해 오스만제국의 젊은 술탄(Sultan) ‘메흐메트 2세’에 의해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1,500년 로마 역사가 막을 내린다. 로마의 멸망은 유럽 전역에 두려움과 불안을 확산시켰고,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졌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는 인본주의 운동, 즉 ‘르네상스’가 태동하게 된다.

한편 동로마의 붕괴로 가톨릭교회가 비밀리에 보관하던 원어 성경 사본들이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에라스무스’는 라틴어 성경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가톨릭이 무오(無誤)하다고 믿어온 라틴어 번역본 성경(불가타역)의 오류를 발견했다. 이를 수정한 성경이 인쇄 및 출판되면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1517년 ‘종교개혁’이 촉발된다.

이처럼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두 혁명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으며 근현대사회를 이끄는 두 축이 되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르네상스로 시작된 인본주의 운동은 200여년에 걸쳐 발전하며 하나님과 기독교를 배척하는 극단적 인본주의 철학들을 쏟아냈다. 이러한 사상은 왕을 중심으로 한 봉건 체제와 가톨릭 중심의 사회조직을 붕괴시켰는데, 그 정점이 바로 1789년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다.

프랑스 혁명은 부르봉 왕조의 독재를 전복시키고, 국민의회 중심의 새로운 국가 체제를 세우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동시에 왕족들과 결탁해 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가톨릭 성직자들에 대한 반감이 혁명의 뿌리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기독교 말살 운동’으로 발전했다.

사회계약론으로 프랑스 혁명에 단조를 제공했던 사회주의자의 아버지 ‘루소’의 동료이자 경쟁자인 ‘볼테르’는 시민들 앞에서 “악당을 타도하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악당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다.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철학자들의 광기 어린 부르짖음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이상 필요없다”는 구호는 국민의회회의의 표어가 되었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인간을 모든 신적 권위로부터 해방하고자 외친 반기독교적 슬로건이 시민혁명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길,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고,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볼테르는 “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을 발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인간 이성’을 신앙화 했고, 니체는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반기독교 철학은 프랑스 혁명 이후 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정치, 과학,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뿌리를 내렸다. 그 결과 인간 스스로 역사의 주인으로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며, 이제는 AI까지 동원해 영생의 꿈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로마의 멸망으로 촉발된 르네상스가 프랑스 혁명을 불렀다면, 에라스무스의 성경 번역과 함께 루터와 칼뱅이 불린 종교개혁은 200년 후인 1776년 개신교도들에 의해 충격적인 혁명을 만들어 냈다. 이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성경적 혁명’이다. 왕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에 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칼뱅은 성경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며 유럽을 변화시킨 개신교회들을 낳았는데, 칼뱅에게 배운 ‘존 녹스’는 영국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를 세웠다. 네덜란드의 개혁자들은 ‘화란 개혁교회’를, 프랑스의 위그노들은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 다양한 개혁주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부패한 가톨릭을 강하게 거부하며 오직

성경에 기초한 삶의 체계와 예배로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들의 영적 도전은 단순히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왕에 의해 통치되는 ‘왕정 국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다. 그리고 드디어 인류 최초의 ‘신정 민주주의 국가’를 시험하는 모험에 도전했는데, 그 산물이 바로 ‘미국’이다.

1776년, 미국 국부들의 정치적 선언인 독립선언서를 보면,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국가의 체계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은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셨는데, 그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통치자(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려 할 때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오리라 예상되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칼빈주의 강연》에 의하면,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죄로 무지해진 세상을 깨우고, 세상의 통치자가 정치인이 아닌 하나님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 심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 정치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로 성경적 가치가 실현되는 개인과 사회, 국가를 꿈꾸기 때문이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정체성 때문에 세속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는 단순히 종교적 신념의 충돌이 아니라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목숨을 건 신념의 투쟁이다. 이 투쟁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500년 동안 ‘반성경적 인본주의 세계관’과 ‘성경을 뿌리로 한 기독교 세계관’은 끊임없이 충돌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 이 땅은 어떠한가? 세계관 전쟁으로부터 자유한가?

새로운 세력, ‘친미 기독교파’

대한민국이 태동하던 시기는 로마가 무너질 때와 유사했다. 기근과 전쟁, 부패로 황폐해진 상황에서 다섯 세력이 등장했다. 일본 같이 개화해야 한다는 친일 개화파, 중국의 사대주의만이 살길이라 했던 친중 위정척사파, 반식민지를 주장했던 친소 공산주의, 단재 신채호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었다. 바로 ‘친미 기독교파’다.

지배계층과 지도자들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다른 세력들과 달리 선교사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주목했다. 백성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설립해 서구의 근대 교육을 도입하고, 조선이 외면했던 여성들과 천민들을 교육했다. 이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1832년 귀츨라프부터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까지, 대부분 칼뱅의 영향을 받은 프로테스탄트였다.

선교사들은 부패한 전체주의 왕정 통치 아래에 신음하던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초로 한 ‘천부인권’과 미국을 세운 ‘신정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실천하게 했다. 그 결과 1887년 새문안교회에서 여성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참여해 투표로 장로를 선출하였는데 이는 역사적인 변혁이었다.

양반 중 첫 기독교인이 된 이승만은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배우며 복음을 접했다. 이후 미국에서 공부하며 성경적 세계관 위에 세워진 미국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꿨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친소 공산주의자 ‘박헌영’에 의해 장악된 정치 세력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 제정국회, 즉 첫 번째 국회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정치적 좌우파의 개념은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됐다. 각각 급진적 개혁과 온건한 개혁을 주장했을 뿐 같은 인본주의 기반의 세력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좌파와 우파는 ‘이념과 신앙’ 차이로 갈라졌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론적 공산주의 세력과 유일하신 하나님, 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대립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땅뿐 아니라 전 세계 역시 혼란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혁명, 두 가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길로,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길로 가려 한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길,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고,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맛있는 말씀 해설(골 3:16)

말씀이 머무는 자리, 회복이 시작되는 공간

최근 우리 가족에게 거룩하고 즐거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 바로 ‘온누리성경읽기앱’으로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일이다. 말씀을 다 들은 뒤에는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매일 당번을 정해 돌아가며 기도로 마무리한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자녀들의 기도와 고백을 듣다 보면 부모인 나도 큰 위로와 도전을 받는다. 온 가족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이 시간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은혜다. 이처럼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행위가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생명력을 불어넣는지 몸소 체험하며, 바울 사도가 골로새교회에 전했던 권면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본문의 첫머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권면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거하다(κατεῖν)’라는 헬라어는 잠시 방문하는 손님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으로서 ‘안주하다’, ‘뿌리를 내리다’, ‘계속 머물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성경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체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인 ‘마음’에 자리 잡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통치적 권위를 가진다는 뜻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πλουσι)’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삶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 자리함을 의미한다. 바울은 골로새교회가 당시 유행하던 헬라의 철학이나 영지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등 다양한 거짓 가르침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유일한 해답으로 ‘말씀의 내주’를 제시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 속에 노출되어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갖게 된다.

이어지는 말씀은, 말씀이 내주한 결과가 공동체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는 구절은 신앙이 결코 개인주의적인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 복음은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그 생명력이 배가 된다. 여기서 ‘피차(αλλήλοις)’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가르침이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서로를 세워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위로를 받듯,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자를 권면하고, 연약한 자는 순수한 고백으로 공동체에 도전을 준다. 말씀이라는 공통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스승이자 동역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혜(σοφία)’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말씀의 풍성함은 반드시 찬양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 본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기록한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면 교만이 되기 쉽고 가슴에만 머무르면 감상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감사가 된다.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εὐχαριστία)’는 문자 그대로 ‘그 은혜 안에서’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형편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고난 중에

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신령한 노래’를 얻게 된다. 형식적인 노래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소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하느냐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져가야 한다. 매일의 시간을 구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도록 ‘말씀이 머무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권면할 때 우리 입술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올 것이다. 말씀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성소임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 드리기를 소망한다.



정현석 목사
(고양은평공동체)

오늘의 힘(Hymn)

‘찬송가, 찬가’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새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새찬송가 160장

부활주일 아침,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떠오르는 선율이 있다. ‘무덤에 머물러’다. 이 찬송은 1874년 미국의 목회자이자 음악가였던 ‘로버트 라우리(Robert Lowry)’가 작사 작곡했다. 단순한 노래를 넘어 죽음의 정적을 깨뜨리는 거대한 서사시 같다.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전 반부는 무덤 속의 정적과 어둠, 그리고 원수들의 비웃음을 묘사한다. 낮은 음조로 진행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 찬송의 진정한 묘미는 극적인 반전에 있다. 곡의 후렴구에 접어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선포와 함께 터져 나오는 강력한 화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이 찬송은 슬픔에서 끝나지 않는다. 반전을 통해 드러나는 승리의 확신은 성도들에게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승리’임을 깨닫게 한다. 특히 후렴의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반복구를 모든 회중이 한목소리로 고백하면 부활의 기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죽음의 공포를 생명의 환희로 바꾸는 이 찬양의 구조는 부활주일 예배의 포문을 여는 찬송으로서 충분한 힘이 있다. 어두운 무덤을 뚫고 솟아오르는 아침 해처럼, 성도들의 영혼에 부활의 산소망을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찬송이라 할 수 있다.

이 찬송은 QR 코드, 유튜브 등 음악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찬양 듣기

빈 무덤을 지나 새로운 삶으로!



〈Resurrecting〉
엘레베이션 워십

엘레베이션 워십(Elevation Worship)의 ‘Resurrecting(부활시키는)’은 부활을 오늘의 사건으로 끌어오는 뜨거운 고백 같은 곡이다.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2천 년 전 과거 사건으로 머물게 하지 않는다.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일깨운다.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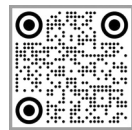
하는 날인 동시에 ‘다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 곡은 바로 그 지점에서 깊은 울림을 준다. 텅 빈 예수님의 무덤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우리의 절망과 실패, 무너진 삶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는 소망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의 성령으로 내가 재에서 일어나리라”는 고백은 부활이 예수님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 또한 날마다 ‘작은 부활’을 경험하는 여정임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예배자는 관객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된다. 부활 주일의 아침, 이 찬양이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여전히 무덤 앞에서 있는가, 아니면 빈 무덤을 지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찬양 ‘Resurrecting’은 화려한 표현 없이도 분명하게 말한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기억이 아니라 현재이며, 사건이 아니라 삶이라고.

이 찬양은 QR 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찬양 듣기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선한 증언으로 열매 맺기를

지난해 8월, 뇌와 뼈,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직후 아내와 자녀에 대한 염려와 사역 중단으로 인한 상실감이 겹치면서 마음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따뜻한 배려와 성도님들, 차세대 학생들의 중보기도 속에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섬기면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2회차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홍수 저류로 인한 잦은 기침과 옆구리 통증 소견을 받았고, 3세대에서 4세대 항암제로 전환하지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치료는 또 하나의 과제이지만,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될 때 부어지는 영적 기름부음을 통해 ‘죽은 나사로의 기적’이 제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약 5:16)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와 병고침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항암 치료에 내성이 생기지 않고 완전 관해(완치)의 길로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제 가족의 건강과 돌봄이 평안 가운데 지켜지고, 매 순간이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 되어서 선한 증언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김기태 전도사(부천 차세대)

문화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기독교 유적 순례’

전주, 호남 선교의 서막을 열다!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
화해설사, <한국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저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 로다”(신 32:7).

모세가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고 했던 말은 무슨 의미일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펼쳐졌던 옛날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른다. 한반도에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풍성하다. <출애굽기>, <역대기>, <시편>, <사도행전>이 그대로 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과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이 비슷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비약적으로 늘어난 교회는 수많은 ‘신앙행전’을 남겼다. 그래서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장소, 인물, 문화재가 무척 많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다. 여행이 일상이 된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 땅에 기록된 기독교 역사는 교회에 대한 감정이 어떻든 실로 감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연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아름다운 교회들을 소개하려 한다. 오직 사명에 순종해서 황량하고 척박한 이 땅에 도착했던 선교사들의 ‘복음행전’도 함께 걸으려 한다. 바보스러울만큼 순종으로 일관했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도 풍성하다.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들의 흔적이 너무 강렬해서 그 앞에 서면 저절로 자세를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 매리 새뮤얼 테이트 리니 폴커슨 데이비스 윌리엄 맥클리 전킨

매리 레이번 전킨 윌리엄 데이비스 레이놀즈 팻시 볼링 레이놀즈

호남 선교의 씨앗을 뿌린 미국 남장로교 7인의 선발대’.

고쳐 잡게 될 것이다.

처음 떠나볼 곳은 전라특별자치도 전주시다. 전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한 고장으로 대접받았다. 조선시대에는 전주를 풍패지향(豊沛之鄕)이라 했다. 풍패는 ‘임금의 고향’이라는 뜻이다. 조선왕조 임금은 전주 이씨였다. 태조 이성계의 4대조까지 전주에 살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삼척, 함흥으로 옮겨 다녔다. 그러니 조선왕조 내내 전주는 왕실의 본향이라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 전주 한옥마을은 전국 한옥마을의 대명사가 되었다. 누구나 한번 가 보고 싶은 곳이 되면서 항상 관광객이 북적거린다. 전동성당, 경기전, 작가 최명희 문학관, 전주향교, 오목대 등을 둘러보다 보면 연륜 깊은 전주의 속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한옥마을에서 조금 벗어나 전주 천변으로 가면 전주 근대화의 뿌리가 된 서문교회를 비롯해 많은 기독교 유적을 만날 수 있다. 전주 천변을 사이에 두고 여러 유적이 밀집되

어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면 매우 의미 있는 일정이 될 것이다.

7인의 선발대와 호남 선교

전주는 호남 선교의 서막을 연 곳이다. 그 이야기는 7명의 선교사로부터 시작된다. 1891년 9월 조선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언더우드와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귀국해서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에서 조선 선교 현황을 강의했다. 선교사가 매우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때 신학생 테이트가 큰 감동을 받았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개최된 전국 신학교 해외 선교연합회 집회에서 테이트, 레이놀즈, 전킨, 존슨 등 네 사람은 언더우드와 유학생 윤치호의 강연을 듣고 조선 선교를 결심했다. 이들 남매, 부부는 모두 7명이었다.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 매리 새뮤얼 테이트, 리니 폴커슨 데이비스, 윌리엄 맥클리 전킨, 매

리 레이번 전킨, 윌리엄 데이비스 레이놀즈, 팻시 볼링 레이놀즈 로 구성된 7인의 선발대는 세인트루이스에 집결해서 함동환송예배를 드리고 출발했다. 한국행 여행에는 1887년부터 워싱턴 주재 조선대리공사로 있었던 이채연의 부인도 동행했다. 전킨이 편도선염을 심하게 앓아서 일주일 치료를 받았고, 레이놀즈 부부도 함께 남았다. 테이트 남매와 데이비스, 이채연의 부인이 조선으로 먼저 떠나고, 나머지 일행인 레이놀즈 부부, 전킨 부부는 1892년 9월 태평양을 횡단하는 요코하마행 증기선에 탑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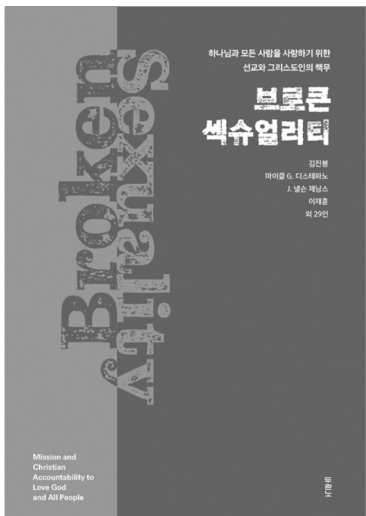
먼저 떠난 테이트 남매, 데이비스, 이채연의 부인 일행은 10월 5일 요코하마에 도착했다. 이채연의 부인이 많이 아파서 데이비스는 조선 입국을 서둘렀고, 테이트 남매는 요코하마에 머물며 레이놀즈와 전킨 부부를 기다렸다. 1892년 10월 17일 데이비스와 이씨의 부인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다. 16일 뒤인 11월 3일 테이트 남매를 비롯한 나머지 일행이 제물포에 당도했다. 이들은 당일 배를 구해 밤새 한강을 거슬러 한양에 도착했다.

1893년 1월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회원들은 ‘장로교 조선 공의회’를 조직하고, 첫 회의에서 남장로교가 맡을 선교지역을 충청도와 전라도로 결정했다. 서북지역과 경기도, 경상북도는 미국 북장로교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경상남도 지역은 호주 장로교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리교 구역을 제외하고 남은 지역이 충청도 일부와 전라도였다. 그러므로 전라남북도의 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이야기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행전을 읽는 것에서 시작된다(계속).

두란노 신간

기독교와 성 그리고 젠더

역사의 거울을 제시하다!



<브로큰 섹슈얼리티>
김진봉 외 32인 | 두란노 | 32,000원

성별 정체성, 동성애 등 오늘날 성과 젠더를 둘러싼 논의는 교회와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주제가 되었다. <브로큰 섹슈얼리티>는 제8회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KGMLF)에서 다룬 논의를 토대로 출간했다.

<브로큰 섹슈얼리티>는 성경적 토대에서 동성애, 성별 정체성, 결혼과 독신, 다양한 문화권의 법적, 사회적 변화를 폭넓게 조명한다.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성적 혼란과 부끄러움, 죄책과 고독이라는 인간의 ‘깨어진 상태’를 정직하게 직시하면서, 복음이 여전히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임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성(性)과 젠더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혼란의 시대에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찾고자 애쓰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초기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스타일>
이상규 | 두란노 | 15,000원

역사학자 이상규 교수가 1~3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집대성한 <초기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나왔다. 헬라-로마 문화라는 거대한 세속 물결 속에서도 복음적 가치를 고수하며 시대에 동화되지 않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을 방대한 사료와 교회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흥미롭게 풀어냈다.

저자는 교회사적 자료, 성경 본문, 고고학적 연구 등을 종합해서 초대교회의 순수하고 원형적인 모습을 복원했다. 이를 통해 초기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단순히 역사적 탐구 대상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를 성찰하게 하는 ‘역사의 거울’로 제시했다.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음을 살아 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문화와 소비, 관계 문제를 재정립하도록 도울 것이다.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적 삶의 본질을 붙들고자 하는 크리스천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지난 3월 22일(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열린 '위문 찬양 예배'.

파워스테이션, 논산훈련소 위문 찬양 예배

훈련병 3,300여 명 참석, 신곡 'Trust In GOD' 공개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역본부 소속 찬양팀 '파워스테이션(PowerStation)'이 지난 3월 22일(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위문 찬양 예배'를 드렸다. 군선교팀과 연합해 진행된 이날 예배에는 훈련병 3,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파워스테이션은 지난 3월 20일(금) 정식 발매한 'Trust In GOD'

을 비롯한 다채로운 찬양으로 훈련병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다.

임동현 전도사(파워스테이션)는 "믿음 없이 온 훈련병이라도 복음이 담긴 찬양을 입술로 선포했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하은 팀장(파워스테이션)은 "두 손을 들고 눈물로 찬양하는 훈련병

들을 보면서 깊은 감사가 밀려왔다"면서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주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길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파워스테이션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차세대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유튜브 채널 'Powerstation Worship(파워스테이션 워십)'도 운영하며 활발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이주민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이주민선교학교 화요일오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4월 12일(주일)까지 아이스쿨이나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이주민선교학교는 국내 이주민 선교 현황과 역사, 선교적 필요성과 방법론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이수한 다음에는 각 지역 온누리M센터와 외국어예배에서 동역할 수 있다. 문의: 010-3788-8353

말씀 해설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에서는 성도들이 평소 궁금하거나 어려워하는 말씀에 대한 해설과 중보기도 제목을 공유한다.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중보기도 제목은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문의: 02-3215-3195

/ 박지혜 기자

NGO 더멋진세상·한동대 GRP팀, 스리랑카 라투갈러 마을 식수 지원 성과 발표

NGO 더멋진세상과 한동대학교 GRP(Global Rotation Program)팀이 스리랑카 라투갈러 마을에서 진행한 식수 지원 사업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동대 GRP팀(곽태영 외 3명)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스리랑카 라투갈러 마을 50가구를 방문해 식수 시설 설치하고, 그 이후 보건 및 생활 환경 변화를 정밀 조사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식수 시설 공급 이후 마을 내 수인성 질병 발생률이 90% 이상 감소했고, 수세식 화장실 보유율이 83.7%로 집계되는 등 보건 위생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및 경제 지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했다. 기존에 식수를 구하려고 매일 2시간 이상 소요되던 취수 노동이 가정 내 수도 연결을 통해 완전히 사라졌다. 질병 감소에 따라 가구당 의료비가 평균 34.9% 절감되었으며, 확보된 용수가 농업용으로도 활용되면서 지역 경제 자립의 기반이 마련됐다. 김광동 대표(NGO 더멋진세상)는 "깨끗한 물을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라투갈러 마을을 넘어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홍하영 기자

261기 아름다운 동행 부부코칭 참가자 모집

4월 11일~5월 2일 매주 토 오후 3시 온누리청소년센터

261기 아름다운 동행 부부코칭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온누리청소년센터 4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아름다운 동행은 부부코치 훈련을 수료한 한 가정이 다른 세 가정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이루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타 교회 성도와 비기독교인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

하는 성도들은 4월 11일(토)까지 아이스쿨이나 카카오톡 '온누리교회 아름다운동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부부당 5만 원.

아름다운 동행 부부코칭에서는 '부부 행복도 측정', '부부 서로 알기', '부부 친밀해지는 법',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주제로 강의와 나눔, 적용 중심의 실습 등을 한다. 문의: 010-5599-7604

/ 남현영 기자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

4월 24일 오전 11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온누리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2026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가 오는 4월 24일(금) 오전 11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지하 1층)에서 열린다.

2026 희망콘서트 'WonderfulLife'에서는 가수 이무송 집사가 사회를 보고, 뮤지컬 배우 정선아, 가스펠보컬밴드 크룩스, 래퍼 휘타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메시지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전한다.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이용자와 서울 프 로비던스 학생들의 연합 합창 무대

도 준비되어 있다.

올해로 네 번째 진행되는 희망콘서트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에게 힘을 선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웃고 즐기는 축제의 장(場)이다. 지난해 희망콘서트에는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장애인 시설, 온사랑합창단, 사랑채버, 온누리교회 장애인사역본부 소속 장애인과 가족, 아직 소속이 없는 일반 성도 가정의 장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의: 02-3215-3417

/ 홍하영 기자

입양, 아이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일!

제이흠, '입양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참석

온누리교회 입양위탁가정모임 '제이흠'이 지난달 23일(월)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김미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입양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7월 국가 주도의 공적입양체계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완료된 입양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을 규탄했다. 입양을 대기 중인 아동은 281명,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602가정에 달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단 한 명의 아이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미에 의원(국민의힘)은 "입양은 완벽한 부모를 선별하는 제도가 아니라 아이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라며 "입양의 본질이 사라진 현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미에 의원은 현재 입양 신청부터 가정법원 허가까지 15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지적하며, '입양신청 및 범죄경력조회 동시 진행', '전국 13명에 불과한 가정환경조사 인력 대폭 확충',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인원 확대', '아동 권리보장원 담당 인력 즉각 총원' 등 4가지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오창화 대표(제이흠, 전국입양가족연대)는 "행정이 멈춰 있는 동안 아이들은 가정 없이 시설에서 자라고 있다"면서 "모든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따뜻한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 홍하영 기자

NGO 메디엑세스 봉사자 모집

사진 촬영 및 보정, 영상 촬영 및 편집

NGO 메디엑세스에서 의료 사역 현장의 순간들을 렌즈에 담아줄 미디어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 모집 분야는 사진 촬영 및 보정, 영상 촬영과 편집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반이다. 선발된 봉사자는 올해 메디엑세스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와 국내 의료사역 현장을 동행하며 콘텐츠 제작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특

히 오는 5월 9일(토)부터 10일(일)까지 경남 통영시 수우도에서 열리는 '특별진료사역'에 동행할 미디어 봉사자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재능 기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전화(02-570-7110) 또는 홈페이지(www.mediaccess.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4월 화요성령집회 '영적 코어'

4월 화요성령집회가 '영적 코어'를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4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7일 이서진 목사 '경외, 생명의 샘' (시 34:1

~14), 14일 최성민 목사 '갈망, 파수꾼의 눈' (막 13:32-37), 21일 최대홍 목사 '신뢰, 약속의 언덕' (롬 4:13-25), 28일 최성민 목사 '소망, 영혼의 닻' (히 6:13-20)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브라질 부활절 뮤지컬 ‘AUTO DE PÁSCOA’

4월 6일 오전 6시 CGN 풍당 라이브 서비스

CGN 풍당이 남미 최대 규모의 부활절 뮤지컬 ‘AUTO DE PÁSCOA (부활절 연극)’를 4월 6일(월) 오전 6시 ‘풍당 라이브’ 서비스한다. ‘풍당 라이브’는 풍당 플랫폼 내에서 국내외 집회 및 예배 현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향후 CGN 풍당에서 다시보기(VOD)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활절 뮤지컬 ‘AUTO DE PÁSCOA’는 매년 수만 명의 관객이 즐기는 뮤지컬이다. 브라질 대형 교회 ‘시티처치’가 22년째 이어오는 유명 공연이다. 올해는 ‘예수(Jesus)’를 주제로 현대 무용과 합창 등을 더한 뮤지컬 형식으로 꾸민다.

CGN 풍당은 4K 화질을 제공하고,



사진은 ‘AUTO DE PÁSCOA(부활절 연극)’ 스틸컷.

AI 기술을 활용해 포르투갈어로 진행되는 공연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자막으로 실시

간 번역 송출한다.

문의: 02-3275-9536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CGN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실습편’

음향, 라이브 영상&자막 등 기술 전문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이 개최한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실습편(이하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이 지난 3월 30일(월) 열렸다. 이번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는 경상북도 구미 상모교회에서 진행됐다.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는 교회 미디어 사역자와 봉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역 교회 미디어 사역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전수했다. 음향 기초, 음향 응용, 라이브 영상&자막, 조명 분야 등을 다뤘다.

CGN 임영광 본부장은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미디어 사역의 열정을 회복하고, 지역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미은 사역자(행복샘교회)는 “그동안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음향기기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데,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 덕분에 이제는 예배와 사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31일(화) 대구 대명교회에서는 AI 시대 교회 미디어 사역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목회자와 임직자, 미디어 사역자를 대상으로 ‘CGN 풍당 세미나 in 대구’를 개최했다.

문의: 02-3275-9536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강남E공동체 전도콘서트 ‘봄을 봄’

4월 18일 오후 2시 양재천 영동3교 아래

강남E공동체가 전도콘서트 ‘봄을 봄’을 4월 18일(토) 오후 2시 양재천 영동3교 아래에서 개최한다.

전도콘서트 ‘봄을 봄’에서는 악기 연주와 춤,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기타 김유정, 전자 바이올린 아이린, 트럼펫 조소영, 피아노 이지원 Grace J, 아코디온 조안나,

부채춤 엘림, 팜페라 김예은과 백성영, CCM 가수 지미션 등이 공연한다. 진행은 황진기 전도팀장(강남E공동체)이 한다. 음악으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종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2739-4433

/ 남현영 기자

“온유한 보호자의 삶으로 초대!”

관계기술훈련학교 서빙고반, 양재반 참가자 모집

회복사역본부 관계기술훈련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빙고반은 4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양재반은 4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양재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열린다.

관계기술훈련학교는 관계와 감정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술들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과 19가지 관계 기술을 익힌다.

관계기술훈련학교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단계와 3단계는 전 단계 훈련을 수료한 성도만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4월 10일(금)까지 QR코드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02-3215-3532

/ 남현영 기자



일대일 양육자반 심화과정 특강 ‘메이크업’

4월 12일과 19일 오후 8시 온라인(Zoom)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심화과정 특강 ‘메이크업’이 4월 12일(일)과 4월 19일(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심화과정 ‘메이크업’은 일대일제자양육 수강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성도들이나 심도 있는 일대일제자양육을 준비하는 양육자를 재교육하고, 영성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다. 7개월

동안 7명의 목사가 강의한다. 4월 12일(일) ‘예수 1, 2’, 4월 19일(일) ‘예수 3, 4’를 주제로 신기섭 목사가 강의한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수강 또는 수료한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문자메시지나 QR코드로 하면 된다.

문의: 010-5573-6793

/ 남현영 기자



EHS(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참가자 모집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 양재 목요저녁 송재호 목사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진행된다. 마지막 9주차(6월 6일, 토)는 남한산성 목사의집에서 오전 10시에 열린다. 9주차를 참석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4월 8일(수)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교재 별도 구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에서는 강의와 조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돌아보는 훈련을 한다.

문의: 010-3229-2040

상반기 사회선교스쿨베이직 참가자 모집

2026년 상반기 사회선교스쿨베이직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회비는 3천 원(교재비). 참가신청은 4월 5일(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수료하면 선택과목 2학점이 부여된다. 세상을 향한 섬김과 나눔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회선교스쿨베이직은 사회선교의 성경적 의미와 사회선교 각 팀의 사역을 배우며, 사회선교에 동참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사회선교본부 산하 각 통합팀 및 사역팀을 체험할 수 있다.

문의: 02-3215-3434, 3436

4월 5~18일 ‘온누리 모자이크 주간’

온누리M미션 소속 외국인 성도들 캠퍼스 방문

온누리M미션에서 외국인 성도들과 교제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2026 온누리 모자이크 주간’이 4월 5일(일)부터 18일(토)까지 이어진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모자이크 주간은 외국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모자이크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이 기간 온누리M미션 소속 외국인 성도들이 국내 온누리교회를 방문하고,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린다.

문의: 031-491-965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봄 맛이 전시회 보러 오세요”

계절의 향기, 우리들의 찬양, 부활의 평강·은혜의 단비

봄맛이 전시회가 5월까지 열린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북서울장애정보화작업시설 소속 발달장애인화가 박선양 작가 개인전 ‘계절의 향기’는 4월 27일(월)까지 갤러리 1707(강남구 신사동 583-3 제이비미소빌딩 4층 405호)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휴관.

사랑부가 주최하는 장애인의 달 특별전 ‘우리들의 찬양’은 5월 9일(토)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을 갤러리(신관 1층)에서 관람할 수 있

다. 온누리교회 사랑부 소속 청년 김재원, 김수, 박혜신, 최희민, 이지영 미술 작가의 작품 20여 점을 전시했다.

온누리아트비전이 주최하는 김준영 작가 개인전 ‘부활의 평강·은혜의 단비’는 4월 7일(화)~5월 10일(일)까지 온누리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성경 속 식물과 부활의 평강을 노래하는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2-985-3609(계절의 향기)

010-3128-2332(우리들의 찬양, 부활의 평강·은혜의 단비)

/ 남현영 기자

온누리세계관학교 심화과정 참가자 모집

4월 21일부터 5월 26일 매주 화 오후 7시

온누리세계관학교 심화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5월 5일은 휴강)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4월 21일(화)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온누리세계관학교 심화과정 주제는 ‘진리의 길, 시대의 도전’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화 문제와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서양 철학과 문화의 역사적 흐름으로 살펴본다. 1주차 ‘무엇을 위한 르네상스인가? 총동하는 세계관, 성과 인권’, 2주차 ‘사람 중심의 근대 사상, 그 허점을 짚어보기’ 등을 주제로 이종우 장로, 서명수 장로 등이 강의한다. 문의: 010-5080-1067

/ 남현영 기자

■ 하트스쿨 참가자 간증



/ 김완식, 조소영 부부(분당A공동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

‘하트스쿨’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과정인지 잘 알지 못했다. 막연하게 들은 몇 가지 정보만으로 반신반의하며 첫 수업에 참석했다. 하지만 하트스쿨의 첫인상이 무척 좋았다. 우려를 씻어내는 많은 스태프의 따뜻하고 열렬한 환대 덕분에였다.

진입 동선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서 환하게 웃으며 우리 가족을 반겨 주던 스태프들이 떠올라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기분 좋은 미소가 번진다. 억지가 아닌 진심으로 맞이해 주는 모습에 우리 가족은 하트스쿨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다.

첫날 첫 수업은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이었다. 처음이라 그런지 서먹함이 묻어났지만, 오히려 더 좋았다. 조금은 어색해하면서도 이내 마음을 열고 훈련을 즐거워하는 각 가정의 모습에서 계산되지 않은 풋풋한 순수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일상에서 감탄사를 자주 사용하면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귀한 강의를 들었다. 속으로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에게 감탄사를 꼭 써야겠다’고 수십 번 다짐했는데,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 탓인지 여전히 입에 잘 붙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이들

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한 가족 그림 그리기, 서로의 온기를 느꼈던 손 만들기 등 합심해서 만든 소중한 추억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였다.

무엇보다 캠프 날, 우리 가족은 온전히 동심으로 돌아가 근심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놀았다. 스태프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맛있는 점심 식사와 풍성한 간식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천국 잔치였다. 우리 가족은 하트스쿨 일정이 끝난 뒤에도 곧바로 집에 가지 않고, 벅찬 감동을 안은 채 양재천과 양재 시민의숲을 마음껏 걷고 뛰놀다가 밤늦게야 귀가하곤 했다. 하트스쿨에 참가하는 동안 육신은 피곤했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이 모든 시간은 스태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조건 없는 헌신이 우리 가정에 고스란히 전달되어 축복을 누렸다. 앞으로 우리 부부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넉넉히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을 하트스쿨로 인도하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EHR) 수료 간증



/ 이해경 집사(분당B공동체)

배운 것을 살아내며
승리하기를!

첫 수업에서 목사님의 제안으로 자기소개를 했다. 마이크가 차례로 돌아왔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많은 사역을 섬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 수업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다”고 고백했던 기억이 난다.

매주 이어지는 수업과 함께 감정을 돌아보는 과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하루 묵상 시간에 나는 첫 수업의 자기소개 시간을 떠올리며 웃곤 했다. 예수님이 “네가 누구를 돕기 전에 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덩어리들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첫 주 과제를 하면서 어려운 마음이 있었다. ‘왜 이리 어렵게 느껴질까?’ 스스로 질문해보니 과제를 형식적으로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 서 목사님이 수업에서 “머리로 하는 공부보다 실제로 살아내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CTR 대화법(공동체 온도측정법)을 연습하며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상처와 새로운 감정들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했다. 나눔 시간에는 조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 때로는 남편에게 이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눴는데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또한 감사하고 신기했다.

묵상을 이어가며 지나간 시간을 돌아봤더니 아쉬움이 크게 밀려왔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사랑으로 더 품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깊이 자리 잡았다.

바쁜 일정으로 정신없었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EHR) 수업 덕분에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예수님 앞으로 조용히 나아갈 수 있었다. 배운 것을 살아내며 승리하기를 기도한다.

수업마다 편안하게 인도해 주신 최용준 목사님과 마음 다해 섬겨 주신 총무님과 조장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이 귀한 수업을 더 많은 분이 듣고 도전과 용기 얻었으면 좋겠다.

■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참가자 간증



/ 이강자 성도(한강공동체)

예수님 따르며,
복음을 증거하며!

온누리교회에 온 지 6년 됐다. 그동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다. 새벽기도회 참석을 소망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 늘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렸다. 그러다 순장님의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나와 섬길 사람이 없냐”는 물음에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밤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잘게요. 그런데도 저를 깨워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알람을 맞추지 않는 건 너무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잠을 청했다. 눈을 떠보니 새벽 3시 50분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해질 듯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향했다.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을 안내하는 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이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구나.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다.

살면서 선교도 많이 가고, 복음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라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표어인 ‘나를 따르라’(마

16:24)부터 새벽기도회까지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다. ‘그동안 내가 너무 나태한 예수님의 제자로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이 생각이 들도록 계속 다가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저는 예수님처럼은 못 살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깐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갈게요. 도와주세요.”

최근에 한 기도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평생의 부담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되겠다는 깨달음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로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제부터는 이 삶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내 입술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작은 음성도 들어주셔서 내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언제나 깨달음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 차세대 세븐업 참가자 간증



/ 최서진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세븐업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해 차세대 예배팀에 들어왔다. 예배팀은 세븐업 참여가 필수라는 안내를 받고, 난 생처음 세븐업을 시작했다. 세븐업에 참여하는 동안 학교에서 겪고 있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졌고, 그로 인한 마음의 부담 또한 깊어졌다. 학기 초에는 학교 가는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힘겹게 느껴졌다. 특히 한 친구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미워하는 마음마저 들었다. 그러다 매주 수요일 아침 세븐업 시간에 그 어려움을 선생님께 나눴다. 선생님은 “이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보자”라면서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 나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 응답은 상대방이 아닌 내 마음의 변화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다. 그 덕분에 그 친구와 서로 불편하지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원만하게 지낼 수 있었다.

2학기부터 함께 세븐업에 참여하게 된 같은

학년 친구와 가까워지면서 기독교 자율동아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 동아리는 3~4년 전부터 이어져 온 모임인데, 올해는 내가 부장을 맡았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기독교 활동을 하는 게 망설여졌지만, 세븐업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이번에 동아리 홍보를 했더니 11명의 친구가 새롭게 참여했다. 동아리에 부흥이 일어난 것 같아 감사하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세븐업 선생님께 감사하다. 그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로 부모님과 나눴는데, 세븐업에 참여하면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교회 선생님도 계신다는 사실이 큰 은혜였다. 학교생활의 고민과 어려움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번에 3학년이 올라갔고, 가까운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예상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장로칼럼

다음세대를 향한 순종의 찬양



최호림 장로
(동대문중량공동체)

다음세대를 위한 작은 파도를 일으키는 청년들이 있다.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한숨 쉬지만, 어떤 청년들은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 그 주인공은 차세대 사역본부 소속 찬양

팀 ‘파워스테이션(PowerStation)’이다.

파워스테이션이 지난 3월 20일, Elevation Worship의 ‘Trust In GOD’을 번안(翻案)한 찬양을 세상에 내놓았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고백이 담긴 이 찬양은 다음세대를 향한 순종의 결실이다.

파워스테이션은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파워웨이브(PowerWave)’를 섬기는 찬양사역팀이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유튜브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파도는 흘러보내기만 하면 약해진다. 밀려나간 파도는 반드시 돌아와 힘을 채워야 다시 나아갈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 ‘파워스테이션’이 있다. 이 찬양팀은 학생들에게 찬양으로 영적 성장 에너지를 채워주는 발전소다. 파워스테이션이 에너지를 충전해 주고, 파워웨이브가 그 에너지를 파도로 만들어 세상에 흘려보낸다. 충전이 깊을수록 파도는 커지고, 파도가 클수록 더 많은 영혼에 닿는다.

‘Trust In GOD’은 바로 그 충전의 결실이다. 발매 당일인 3월 20일 작은예수 40일 새벽 기도회에서 파워웨이브 학생과 교사, 교역자 50여 명이 이 곡으로 함께 예배하며 먼저 은혜를 충전했다. “불 가운데도 내 손 놓지 않으

신 주”라는 가사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다. 그 고백 자체가 충전이고, 그 충전이 다시 큰 파도가 되어 흘러갔다. 그 파도가 닿은 현장을 내가 직접 목격했다. 얼마 전 파워스테이션과 군선교팀이 함께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았다. 3,300명이 넘는 훈련병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마지막 찬양으로 ‘Trust In GOD’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처음 듣는 곡이었는데도 훈련병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했다. 가사를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심어 정다인 자매는 엉엉 울며 찬양하던 장병과 눈이 마주친 순간을 떠올리며 “한 사람의 눈물이 옆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의 연쇄를 일으켰다”고 고백했다.

파워스테이션 청년들이 만들어 낸 찬양 한 곡이 3,300명의 청년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같은 찬양이 계속 음반으로 나온다면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본다.

다음세대 사역은 청년들만의 몫이 아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내 걸음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믿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파워스테이션의 찬양사역과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작은 실천의 시작이다. ‘Trust In GOD’을 듣는 것, 유튜브에 ‘Powerstation Worship’을 검색하는 것도 다음세대를 향한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는 힘이다. 자녀에게 찬양 ‘Trust In GOD’을 권하고, 온 세대가 함께 같은 찬양을 불러보자. 성령의 파도가 더 강해질 것이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이 찬양의 고백이 다음세대를 향한 순종을 다짐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그 아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김은희 권사
(새사람사역팀)

새사람사역팀에서 교도소 사역을 시작한 지 몇 해 동안 나에게 아들이 생겼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나는 그들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3월이면 시작되는 전반기 아트터치와 일대일제 자양육에 참여하면

서 만나게 된 형제들이다.

새사람사역팀은 일주일에 하루 정해진 날에 교회 로비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교도소로 출발한다. 아직은 소년 같은 잘생긴 청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자유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이 어둡고 침울하게 느껴져 가슴이 무거울 때도 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형제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부여하신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

복음을 나눌 때 형제들이 냉소적이거나 생소해 하기도 하지만, 어쩌다 결정적인 한마디 질문을 던질 때면 놀라움과 희망의 우물물을 퍼 올리는 두레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급하지 않게 조심스레 퍼 올리다 보면 어느새 양동이에 물이 가득하게 되지 않겠는가.

복음을 듣고 그들의 눈망울이 새롭게 반짝일 때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다. 며칠, 아니 몇 년을 가둬 그리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독하고 힘든 순간들을 지내야 하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진한 눈물로 회개할 때가 있다. 비로소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삶의 방

향을 바꾸게 한다. 그 순간 숨겨진 천국이 그 형제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그곳은 더는 닫힌 문이 아니다. 비록 모두가 한결같이 돌아키고 깨닫는 것은 아니라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매주 아직 새벽빛이 가시지 않은 길을 나서는 것과 한밤중에 그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는다. 매일 아침 그 형제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 오늘 아침 목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슴을 적셔 주셨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사 40:9).

때론 숨 막히는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을 품고 가는 그곳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하신다. 그곳이 지금은 광야와 사막 같으나 장차 시온이 될 거라 말씀하신다. 힘써 소리 높이고 두려워 말고 만나는 모든 형제에게 따뜻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고 격려하신다.

언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사랑하시고 간섭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 형제들이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한다. 이 귀한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대상: 주중 사역이 가능하고, 교도소 사역에 헌신하기 원하는 성도

봉사: 일대일제자양육, 문서 전도, 중보기도, 악기, 예배 찬양 등

문의: 010-3242-8743

신앙에세이



황유일 목사
(꿈이자라는땅)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비웃었다. 재물이 많은 것이 곧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 6:24).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선포하셨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힘, 즉 ‘맘모나스’를 뜻한다.

불은 추위를 녹이고 음식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도구다. 그러나 통제력을 잃고 번져나갈 때 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재앙이 된다. 이를 ‘불 화(火), 마귀 마(魔)’자를 써서 ‘화마(火魔)’라 부른다. 마치 마귀와 같은 존재로 돌변한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온 산을 태워버린다. 반대로 큰불이라도 잘 다스리면 도시 전체를 밝히는 에너지가 된다.

재물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는 맘몬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재물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된다.

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故 하용조 목사님은 <마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통찰하셨다.

“불에 타고 없어지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불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물,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진다. ‘돈 전(錢)’자를 쓰는 가짜 ‘전지전능(錢知錢能)’에 삶을 의탁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돈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책임져 주지도 못한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만이 삶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온전할 전(全)’자의 참된 전지전능(全知全能)이시다.

성경은 돈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다.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주인’이다. 돈이 맘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평생에 걸쳐 다음 세 가지 영적 방화벽을 세워야 한다.

첫째, 끊임없는 점검이다. 돈이 내 삶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목적’이 되었는지 수시로 살펴야 한다. 둘째, 타협 없는 정직이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틈으로 맘몬은 스며든다. 재정을 다루는 데 있어 투명함과 정직함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가장 강력한 울타리다. 셋째, 범사에 감사는 태도다. 재물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동일하게 감사하면 돈이 더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묻고 계신다.

“나를 너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아줄 수 있겠니?”

돈이 주인이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면 돈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도구가 된다. 우리는 전(錢)을 붙잡고 불안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한다.

서빙고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장애인 고등&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태주 목사(010-6690-7694)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꿈사랑부 대상: 장애 유아, 초등, 중등학생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김주희 전도사(010-4578-051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 - 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2층 콘서트를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0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째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째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째 토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얼 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방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방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체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조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	--	--	--	---	--	--	--	---

양재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초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초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3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690-006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	--	---	--	---	--	---	--	--

수원031.895.6500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031.515.3521 토요주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4:0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들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9:0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꿈팡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팡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	--	--	--	--	--	---	--	--

강동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양지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064.794.8090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041.665.9686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	--	---	--	---	--	--	--	---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유현목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2-6층 • 남양주 변대성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항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제주 김태용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사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서산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안경로 213 4층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박재영 목사1-619-847-4147 896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01821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오글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uibasi Chuoku Osakasi Japan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4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요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HA DAIA-MOND 2F •교토 권영택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국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유현목 변대성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육환 김태용 최영민 ●부목사(전임)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관수 김도윤 김태위 김미정 김상규 김상수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자아 김종호 김창호 김광희 김태광 김홍주 김한규 김 현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현 려문송 문영재 민근홍 박근범 박성A 박영B 박성진 박찬중 박철웅 박성우 박형준 배순알 배철삼 배성우 서수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대중 신원석 신현민 송동주 송재호 안대진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유진아 유현복 원미리 윤이삭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준민 이승호 이우람 이윤재 이은호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이형목 이호준 임용성 장동원 장서천 장재원 장재홍 장지훈 전병천 전신의 전 진 전재파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영선 정현서 정희성 제지훈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진상미 주하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해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하철호 하원희 황보규 황유일 ●전도사(전임) 김한솔 박성원 박성훈 신주용 유석현 유현우 이예찬 임동현 장건우 최하중 홍근영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이기훈 조호영		황종연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국내과거 목사 고범석 ●협동목사 김도일 류보세 방성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씨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킬 서영철 생애매그 이강혁 윌베케이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은일 이진이 이진희 임성진 임진숙 정진도 제민양 최선재 최장현 허효경 황원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권영찬 권예람 권병화 권혁서 김기희 김기태 김명초 김민수 김기희 김범석 김빛나 김소광 김승희 김신영 김영범 김영욱 김예은 김예찬 김유미 김재현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하성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홍미 김하목 김요진 나가노 마사토 나영필 남 해 드미트리 박 권 백성호 문수진 미즈바울 박 권 박미애 박 성 박성훈 박시은 박유진 박의력 박종필 박정민 박찬미 방예린 방진아 배성진 배윤주 배현희 안루택 서나영 서은지 서혜진 순위결 순영호 송천우 송현우 신대환 신지수 신오철 에르제광 안루택 연경태 오성광 오성민 오영광 오예원 오진우 오혜광 옥동우 유수진 오성우 윌리엄스 유요한 유지은 유 찬 윤지현 이건준 이나단 이미진 이민규 이선민 이신혜 이소라 이승은 이승미 이준영 이은찬 이재용 이진수 이준환 이지영 이택민 임경미 임노완 장은영 장영주 전미연 전준호 정영일 정기은 정승희 정영연 정영현 정주는 정찬중 제영민 조민희 조승길 조영찬 조혜원 조운식 조준우 조현주 조영진 지석규 지수정 주승환 주영진 차선일 최성진 최 은 최영주 최해정 하예립 하현영 한숙희		허영은 홍세나 황서하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신의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서 권오승 권용성 권용한 권철중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두진 김병세 김병중 김병철 김명훈 김병욱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복 김성수 김상인 김수영 김영수 김용기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 원 김원규 김원준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렬 김재욱 김재일 김종근 김종성 김종승 김주홍 김준규 김준용 김준홍 김지홍 김창수 김철수 김철주 김태경 김하중 김형걸 김형식 김영중 김하수 나성관 나영욱 남상길 노기홍 노재환 류기범 류지영 문성기 문창호 문창호 문종철 문현구 박 공 박두원 박병률 박병의 박봉태 박승우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대 박영태 박용국 박우형 박일규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형민 박홍균 배기영 배 문 배병태 백남인 백승웅 백흥기 박상선 서성렬 서성현 서진복 서진교 성주명 성창섭 순정래 순한기 송기선 송영범 송영태 송우신 송일식 송재길 송종태 신민인 신영각 신우권 신화철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훈보 안국영 안동혁 안성영 안영태 안태환 양유식 양재수 양준경 엄태진 오성연 오성훈 오승구 원우현 유 형 유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현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석우 윤영자 윤성성 윤영오 윤현택 이광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바식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용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기 이상태 이상도 이상욱 이영일 이영세 이영철 이승경 이용대 이창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영근 이종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현열 이현규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임병수		임현태 장안희 장현호 장정철 전한백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승훈 정영규 정영열 정영화 정운오 정재택 정재현 정진호 정화영 정희태 조규상 조대희 조성원 조성현A 조성현B 조성근 조성현 정진하 정파중 정희원 조화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춘구 차준환 천영부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정수 최종길 최희영 편우욱 함갑식 한규중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혁 한형식 함광식 함선조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형식 홍기명 홍기영 홍덕표 홍병진 홍종철 홍정표 홍재남 황영옥 황용오 황의서 ●사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성훈 강승철 강종호 강찬호 강창재 강대욱 고길범 고영대 고영주 광범길 광진석 광대일 곽희준 구경용 구자영 국종대 권순형 권오혁 권혁은 금세종 김경태 김강하 김광호 김광준 김기섭 김기영 김도연 김도원 김동섭 김동수 김동우 김동원 김동준 김동환 김민준 김명현 김성훈 김민찬 김선규 김선호 김성진 김성중 김성원 김성철 김영성 김영준 김인원 김영관 김영철 김영순 김영욱 김영국 김영철 김영환A 김영철B 김영철 김우호 김의래 김이준 김진선 김장영 김장민 김지화 김종민 김종완 김준호 김지학 김지현 김진현 김창석 김창원 김철민 김태영 김해진 김현주 김형석 김형진 김화선 김효구 김희식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남명현 남윤환 남정호 남지준 남주인 노경환 노진기 문상찬 노하수 라상원 라명현 라민찬 문영기 문정석 민문기 박건용 박구범 박규명 박광민 박건식 박덕현 박동현 박승병 박용익 박영환 박용근 박승민 박용의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	--	---	--	---	--	---

소천

3/27(금) 과천의왕 양미령 성도 부친상 고 양성식
3/27(금) 분당A 임은희 권사 부친상, 성가평 집사 병부상 고 임철순
3/28(토) 서초B 이주미 성도 부친상, 정순경 성도 병부상 고 이희영
3/29(일) 서초C 양미별 결연선교사 부친상, 송동원 결연선교사 병부상 고 양재근
3/29(일) 서초D 정문영 성도 부친상, 이성은 성도 시부상 고 정재환
3/29(일) POINT5 박희정 성도 모친상 고 김승애
3/29(일) 일산파주 윤영훈 성도 모친상 고 한영자
3/30(월) 용산 삼재원 집사 부친상 고 심효섭
4/1(수) 강남E 박수현 집사 부친상, 김동진 집사 병부상 고 박영식
4/1(수) 강남B 전홍정 성도 부친상, 이승희 성도 시부상 고 전태원
4/1(수) 강남B 이지연 성도 모친상 고 김영숙
4/2(목) 강남C 조은주 성도 부친상 고 조용식
4/2(목) 양천 우정원 성도 시부상 고 김인호
4/2(목) 노원 이인숙 권사 모친상, 황영옥 장로 병모상 고 도옥희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140-026 서울시 용인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차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여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
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8: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대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보드미 봉사자 모집
자격: 용산구민 누구나
내용: 용산구 내 고령, 은둔 어르신 방문, 어르신 대상 정서 및 돌봄
지원, 문화활동 동행 등
신청: VMS 신청, 우선
문의: 김유진 팀장(070-4340-250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식사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특별시장애인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기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인
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
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현금온라인 안내
입금주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입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갑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 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태돌아치로,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아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미션 자동차 안쪽)
상담 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비용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초·중등)모집
대상: 초1~중1(타 캠퍼스, 타 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완주초청소년센터 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신영화(010-5091-1862)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전임교수 초빙
분야: 선교학, 기독교교육학, 실천신학(설교학 전공자 우
대)
접수: 5월 6일(수) ~5월 15일(금) 17: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guae.kr)에서 초빙공고 참조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모집: 행정업무
대상: 여성(20~30대)
우대: 인근거주자, 컴퓨터 활용능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rn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CGN

부활절

추천 콘텐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
'풍당'의 은혜로운 콘텐츠로 온가족이 함께
부활절을 더욱 특별하게 채워보세요



풍당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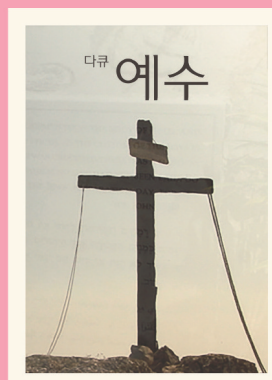
〈어린이도 어른도 보기 좋은〉

애니메이션



〈역사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다큐멘터리



〈예수의 삶을 생동감 있게 만나는〉

영화·드라마

